농협, 강진쌀 가공·유통사업 지원

농협 강진군지부(지부장 이강섭)가 지자체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9천만원을 들여 강진쌀 가공·유통사업을 지원한다.

군 지부는 강진군과 함께 홍보용 샘플제작, 포장지 제작지원, 주요 판매점 판촉행사, 수도권지역 대량 소비자 초청 등 강진쌀 판매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이강섭 지부장은 "강진군의 우수 농산물이 수도권 및 영남권에서 제값을 받고 팔릴 수 있도록 내년에는 '강진 쌀 사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강진=이병철기자 mood@

나주 계량마을-사학연금공단 결연

나주 계량마을(대표 김종관)과 사학연금관리공단(이사장 서범석)은 지난 1일 계량마을 회관에서 1사1촌 자매결연식을 가졌다.

김종관 계량마을 대표는 이날 "고급 품종 개발과 수확·관리·유통 등에 관심을 기울여 도시소비자들로부터 신뢰받는 농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범석 이사장은 "농촌을 돕기 위해 농산물 구입, 일손돕기, 농촌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제30대 보성향교 전교에 박해철씨

제 30대 보성향교 전교에 박해철(64·사진)씨가 선출됐다.

지난달 30일 보성향교 사상 처음으로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박씨는 내년 1월부터 2008년 12월말까지 2년간 보성 향교를 이끌어가게 된다.

박해철 당선자는 "보성향교의 애국애족 정신을 이어가면서 지역주민들의 존경을 받는 보성향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보성=안구일기자 giahn@

신용부실 조합원 무더기 제명 논란

농민들 "회생기회도 안주고 385명이나" 반발

월출산농협 "내용증명 발송…소명기회 줬다"

영암월출산농협(조합장 박옥열)이 최근 임시 대의원회의에서 신용부실 조합원 385명을 무더기 제명처리해 농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월출산농협은 지난달 30일 임시대의원회의에서 2005년 말 기준, 회수불능 채무를 지고 있는 조합원 385명을 제명했다.

월출산농협은 지난 10월 27일 열렸던 제 9차 이사회에서 신용부실 조합원 제명 건을 의결한 데 이어 이날 대의원회의 의결로 제명처리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번에 제명된 조합원들은 최근 수년 동안 신용거래가 중단된 상태로 이들의 부실규모는 61억여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대해 농민들은 조합측의 조치가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김성수(60) 시종농민회장은 "조합원 제명이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마지막으로 회생기회나 소명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너무 성급한 처사"라며 "제명의결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에대해 월출산농협 관계자는 "정기감사때마다 부실조합원 정리문제가 지적되어 왔으며 제명대상 조합원들에게 15일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소명기회를 줬다"면서 "무자격 조합원을 정리할 수 있도록 규정된 농협정관 37조 3항을 준수했고 대의원 101명중 89명이 출석해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월출산농협은 지난 2003년 12월 서호농협이 운영난에 처한 시종농협을 흡수·통합하는 형식으로 출범했으며 3천500명의 조합원이 가입돼 있다.

/영암=김한남기자 hnkim@

사랑의 김장 영암군 자활후견기관(관장 최민석 신부)은 최근 김일태 군수 부부, 자원 봉사자들과 함께 김장을 담궈 독거노인과 소년소녀 가장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했다. /영암=김한남기자 hnkim@

지난달 말 준공예정이었던 진도군 고군면 마산리 선착장 일부 구간이 유실돼 부실공사 논란이 일고 있다.

연약지반 기초조사도 없이 시공

준공 앞둔 선착장 '와르르'

진도 마산리 25m 유실

준공을 앞둔 진도군내 한 선착장이 갑자기 유실돼 설계부실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달 말 준공 예정이었던 고군면 마산리 선착장 신축공사(길이 114m.너비 10m) 구간 가운데 25m가 최근 갑자기 유실됐고 나머지 구간도 추가 유실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 해 11월 7억1천여만 원이 투입된 이 공사는 지반 대부분이 연약지반인데도 기초 조사 없이 시공한 것으로 드러나 예견된 사고였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인근 선착장 공사현장에서도 침하 현상이 나타났고 지산면 안치 선착장, 조도면 맹골도 선착장 공사 과정에서도 이 같은 유실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도 군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

군 관계자는 "연약지반일 경우 지반조사 등 기초 조사가 필요하지만 소규모 선착장 공사의 경우 사업비 부족으로 엄두도 못 내고 있다"면서 "마산 선착장에 대한 복구방안에 대해 주민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화순 한천면 폐기물처리장 '골머리'

승인 무효 판결로 공사 계속 여부 불투명

화순군이 한천면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공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달 30일 광주고법이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에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 2명을 참여시키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화순군의 폐기물처리시설 승인 처분이 무효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로 내년 6월 완공 목표로 현재 45% 공정을 보이고 있는 폐기물종합처리장 공사가 계속될지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화순군은 대법원 판결이 날때까지 공사를 강행할 방침이나 주민들이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할 경우 법원이 주민들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6월 능주위생매립장이 폐쇄될 예정이어서 한천 폐기물종합시설 공사가 중지될 경우 쓰레기 대란도 우려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3일 "공사 중단사태가 없도록 주민들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천면 주민들은 "그동안 화순군이 주민들의 정당한 의견을 이기주의로 몰아부쳐 왔다"며 " 법원 판결을 존중해 공사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광산구 '공무원 멘토링' 6일부터 실시

광산구가 신규 임용된 7~9급 새내기 공무원 38명과 선임 공무원들을 1대 1로 맺어주는 '멘토링(mentoring) 제도'를 오는 6일부터 6개월간 실시한다.

광산구는 "멘토링제도는 교육원에서 일정기간 직무교육을 수료한 후 업무 배치를 받는 기존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어 업무능력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광산구 관계자는 "하루빨리 공직사회에 적응하고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초보공직자들의 당면과제"라며 "멘토링제는 경직된 조직문화를 지양하고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광산구만의 독특한 제도"라고 말했다.

/광산=기원태기자 wtkee@